

# 『도카이도추 히자쿠리게(東海道中膝栗毛)』의 구성에 대한 고찰

김정은\*

jungeun99@hanmail.net

## 차례

1. 서론
2. 본론
  - 2.1 작품상의 행보와 일정
  - 2.2 작품의 허구와 실제
  - 2.3 오리지널과 모방작
3. 결론

## 요지

本論文は、近世滑稽本の代表作である十返舎一九の『東海道中膝栗毛』の構成に関するものである。文學史上新ジャンルを開いたことや、弥次郎兵衛・北八という獨特の人物造型を成し遂げたこと、多様な滑稽技巧的側面、典據の適切な改作とはめもの能力などでは、高い評価を得ている反面、構成面については研究が進んでおらず、かえって低い評価しか得られていないところに注目した。研究方法としては、時間的背景と空間的背景を徹底的に分析し、その分量が編ごとに一貫して均一に分けられているとの結果を得られた。そして、實際の旅程との比較分析を通じて、フィクションでありながらもリアリティーを欠いていないことを証明した。最後には『膝栗毛』の模倣作である、貧道人作『膝栗毛續編』との比較を通して、各作品の決定的な違いは、構成面にあったことを示し、數多くの模倣作の出現にも関わらず、その位置を譲らなかつた『膝栗毛』の位相を確認した。今までの研究史で触れられなかつた滑稽本の構成に焦點を当てたところに、本論文の意義があると思われる。

**키워드**: 골계본, 짓펜샤 잇쿠, 히자쿠리게, 구성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석사 졸업.

## 1. 서론

『도추 히자쿠리게』(道中膝栗毛)<sup>1)</sup>는 1802년부터 1822년까지 21년 동안 발간된 시리즈물이다. 정편(正編)인 『도카이도추 히자쿠리게』(東海道中膝栗毛, 이하 『히자쿠리게』로 표기함) 9편 18책과 속편인 『속 히자쿠리게』(續膝栗毛) 12편 25책으로, 합계 21편 43책이 발간되었다.

그 내용은 아지로베(弥次郎兵衛), 기타하치(北八)<sup>2)</sup>라는 두 인물의 여행담이다. 루트는 에도(江戸)에서 도카이도(東海道), 이세가도(伊勢街道), 이세신궁을 거쳐 전국 곳곳의 명승지에 이른다. 이들의 여행길에서 일어난 우스꽝스런 실패담을 중심으로, 그 사이사이의 정경이나 인정, 방언 등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발간 당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 수많은 모방·아류작들을 낳았으며, 연극이나 영화, 캐릭터상품을 탄생시키기도 했다.<sup>3)</sup>

작자인 짓펜샤 잇쿠(十返舎一九, 이하 잇쿠로 표기함)는 1765년, 하급무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788년에 오사카에서 조루리(淨瑠璃) 공동집필을 하고 1790년에 에도로 나와 그림을 그리다가 1795년, 당시 대형 출판사였던 쓰타야(蔦屋)에서 자작 기보시(黃表紙) 3종을 간행하고 게사쿠(戯作)<sup>4)</sup>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간세이(寛政) 개혁<sup>5)</sup> 때 풍기문란을 이유로 절판된 사레본(洒落本)의 대체물로서, 골계본(滑稽本) 처녀작인 『히자쿠리게』를 발간한다. 무대를 유곽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내용의 초점을 대중적인 웃음에 맞춘 새로운 시도였는데, 새 장르를 탄생시킨 작가로 지금도 문학사상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후 잇쿠는 평생에 걸쳐서 다양한 장르에서 합계 443종(種)의 작품을 썼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작작가로도 유명하다.<sup>6)</sup>

- 1) 「도추 히자쿠리게(道中膝栗毛)」의 의미는 밤색 털(栗毛)을 가진 말(馬)을 대신하여 자신의 무릎을 앞뒤로 반복시키면서(膝を繰る) 길(道中)을 나아간다는 것으로 도보여행을 말한다.
- 2) 주인공들의 이름은 弥次・弥次郎・弥次郎兵衛・弥次郎兵衛、北八・北・喜多・喜多八 등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다. 본문 인용은 텍스트에 따르지만, 한글표기는 주로 「아지」 「기타」로 통일한다.
- 3) 모방·아류작에 관해서는 浜田啓介(1978: 187)에 「어떻게 안 될 정도로 다수가 출현했다」고 있으며, 연극·영화·상품에 관해서는 綿拔豊昭(2004: 8-12)에 상세하다.
- 4) 근세 중기 이후, 주로 에도(江戸)에서 발달한 속문학, 특히 소설류를 지칭한다.
- 5) 11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나리(徳川家齊)때 로주(老中)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를 등용하여 행해진 막부의 개혁. 교호(享保) 개혁을 이상으로 삼아, 긴축정책과 풍기의 쇄신을 도모한 것(1787~1793)
- 6) 그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보시 168, 요미혼(讀本) 16, 골계본 24, 사레본 14, 닌조본(人情

이렇게 방대한 양의 작품과 특이한 이력을 갖는 잇쿠, 그리고 21년간의 대흥행을 기록한 『히자쿠리게』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이로 인해 일찍부터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그리하여 잇쿠의 이력이나, 『히자쿠리게』의 출판경위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완성된 상태이며, 특히 야지·기타의 인물론, 골계적 기교의 치밀함, 전거의 다양성과 그 자연스러운 삽입 형태 등에 관해서는 우수성이 입증된 실정이다.<sup>7)</sup>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는 작품 외적인 것에 치중하거나, 인물이나 골계적 기교 연구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작품 구성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소 이소지(麻生磯次, 1958)는 “줄거리 형태를 보니 각 장면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요미혼(讀本)·고칸(合卷)과 같은 줄거리의 계획이나 발전은 없으며, 일관된 서술의 체재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저 장소의 관계나 주요 인물의 관계로 연결을 유지하고 있을 뿐, 이야기 자체는 따로따로 나란히 놓여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다. 후지무라 쓰쿠루(藤村作, 1928), 미타무라 엔교(三田村鷹魚, 1976), 진보 가즈야(神保五彌, 1988) 등이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구성보다는 취향에 치중하는 게사쿠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며<sup>8)</sup>, 게사쿠의 구성은 연구사에서 등한시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성면의 낮은 평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긴 연재기간, 뛰어난 인물조형 등 다른 측면에서의 높은 평가와는 상충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히자쿠리게』의 구성이 치밀한지 조악한지는 차치하더라도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에서는 작품 자체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sup>9)</sup> 이는 기존의 본 작품을 둘러싸고 행해져온 각기 다른 두 측면을 하나로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온전한 작품 이해를 통하여, 본 작품이 지닌 특성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해질 것이다.

본) 6, 하나시본(咄本) 18, 고칸(合卷) 197, 합계 443종.

7) 잇쿠의 이력에 대해서는 棚橋正博(1999) 『(笑いの戯作者)十返舎一九』에, 『히자쿠리게』의 출판경위에 대해서는 中山尚夫(2002) 『十返舎一九研究』에, 야지·기타 인물론은 松田修(2002) 『松田修著作集』에, 골계적 기교의 치밀함은 池田廣司(1976) 『文學研究のあり方』, 康志賢(1994) 『東海道中膝栗毛』の一考察』에, 전거의 다양성과 그 자연스러운 삽입 형태는 中村幸彦(1948) 『十返舎一九論』에 상세하다.

8) 산토 교덴(山東京伝)의 기보시, 『작자 태내 십개월도』(作者胎内十月図)에서는 취향의 중요성을 설하고 있다.

9) 텍스트는 『도추 히자쿠리게』시리즈의 정편인 中村幸彦 校注 『新編日本古典文學全集81 東海道中膝栗毛』(小學館, 1995)으로 하였다. 속편에 대한 고찰은 차후의 과제로 삼으려 한다.

## 2. 본론

### 2.1 작품상의 행보와 일정

#### 2.1.1 여정의 행보

『히자쿠리게』의 에피소드들을 성립시키는 주체로는 주인공인 야지·기타가 있고, 그 무대는 도카이도·이세가도 등의 가도(街道)이다. 야지·기타에 관해서는 나카무라 유키히코(中村幸彦)를 비롯하여 여러 선인들에 의해 연구되어왔으며, 그 오리지널리티와 가치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학자인 주작인(周作人)이 인정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에피소드를 성립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 요소인 무대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두 주인공은 초편에서 도카이도의 니혼바시<sup>10)</sup>, 시나가와, 가와사키, 가나가와, 호도가야, 도즈카, 후지사와, 히라쓰카, 오이소, 오다와라, 하코네 역을 지나고 있다. 2편 상에서는 하코네, 미시마, 누마즈, 하라, 요시와라, 간바라 역을 지나며, 2편 하에서는 간바라, 유이, 오키쓰, 에지리, 후추, 마리코, 오카베를 지난다. 3편 상에서는 오카베, 후지에다, 시마다, 가나야, 닛사카를 지나고, 3편 하에서는 닛사카, 가케가와, 후쿠로이, 미쓰케, 하마마쓰, 마이자카, 아라이를 지난다. 4편 상에서는 아라이, 시라스카, 후타가와, 요시다, 고유, 아카사카를 지나며, 4편 하에서는 아카사카, 후지가와, 오카자키, 지류, 나루미, 미야, 구와나를 지난다. 5편 상에서는 구와나, 옷카이치를 지나고, 5편 하에서는 옷카이치, 간베, 시로코, 우에노, 쓰, 구모즈, 마쓰자카, 고바타, 아마다를 지난다. 5편 추가는 아마다에서의 이야기이다.<sup>11)</sup>

위의 지난 역들 중, 하코네, 간바라, 오카베, 닛사카, 아라이, 아카사카, 구와나, 옷카이치, 아마다 등은 책의 마지막 혹은 첫 부분에 위치하여, 기술이 겹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쪽에 편입시키도록 하고, 편마다 지나는 역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초편에서는 10개의 역을, 2편 상권에서 5개 하권에서 6개 합계 11개, 3편 상권에서 5개 하권에서 5개 합계 10개, 4편 상권에서 6개 하권에서 5개 합계 11개, 5편 상권에서 2개 하권에서 7개, 추가에서 1개 합계 10개의 역을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 기준으로 보면, 10, 11, 10, 11, 10개라는 식으로 거의 일정하게 나뉘어 있고, 책을

10) 지명의 한자는 아래 주석에 제시한대로이다.

11) 교토를 무대로 삼은 6, 7편과 오사카를 무대로 삼은 8편, 에도를 무대로 삼은 발단은 여행 가도를 가는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므로 추후 다른 시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책으로 편성이 안 되어있는 초편과, 이세가도로 들어가는 5편을 제외하면, 2편부터 4편까지 5, 6, 5, 5, 6, 5개라는 식으로 일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편 당 속역(宿驛)의 수와 연결되는 것으로, 주인공들이 편마다 나아가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sup>12)</sup> 초편에서 니혼바시를 출발, 하코네에서 끝나고 있는데, 이 거리는 23리 19정(약 92km)이다. 2편은 하코네에서 오카베로 23리 2정(약 91km), 3편은 오카베에서 아라이로 20리 1정(약 79km), 4편은 아라이로부터 구와나로 26리 29정(약 105km), 5편은 구와나로부터 아마다까지로 21리 7정(약 83km)이다. 따라서 편 당 거리는 20리~26리로, 거리상으로도 편마다 비슷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히자쿠리게』의 배경 무대인 가도를 편마다 나누어서 보았을 때, 52개의 역이 10개~11개의 역으로 일정하게 배분되어 기술되어 있으며, 그 거리는 20리에서 26리로 잘 정돈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타무라 엔교(1976)의 “도카이도라는 것을 하나의 무대로 삼고, 야지키타라는 배우를 사용하여 원래 서로 연관성이 없던 취향으로 『히자쿠리게』를 만들었다.”는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며, 『히자쿠리게』의 장편으로서의 구성과 틀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잣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1.2 일정의 배열

『히자쿠리게』의 무대인 도카이도, 이세가도 등이 공간적 배경이라면, 날짜나 일정은 시간적 배경이 될 것이다. 『히자쿠리게』에서 날짜를 나타내는 서술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편에서는 출발 날을 그저 「봄날」이라 하고 있고, 그 12년 후에 발간된 발단에서도 「음력 2월 중순」이라는 간단한 기술에 그치고 있어, 정확한 출발 날짜는 알

12) 작품 내에서 나타나는 속역들 간의 거리는 다음과 같다. 1리(里)란 여기서는 일본의 단위로, 한국의 10리, 즉 3.9273km이다. 1정(町)은 약 109m이며, 36정이 1리에 해당된다.

日本橋 -2리- 品川 -2리 반- 川崎 -2리 반- 神奈川 -1리 9정- 保土ヶ谷 -2리 9정- 戸塚 -2리 - 藤澤 -3리 반- 平塚 -27정- 大磯 -4리- 小田原 -4리 8정- 箱根 -3리 28정- 三島 -1리 반- 沼津 -1리 반- 原 -2리 반- 吉原 -3리- 蒲原 -1리- 由井 -2리 12정- 興津 -1리 2정- 江尻 -2리 25정- 府中 -1리 16정- 丸子 -2리 9정- 岡部 -1리 26정- 藤枝 -2리 8정- 島田 -1리- 金谷 -1리 24정- 日坂 -1리 29정- 掛川 -2리 16정- 袋井 -1리 반- 見付 -4리 7정- 浜松 -2리 30정- 舞阪 -23정- 新居 -1리 24정- 白須賀 -1리 17정- 二川 -1리 20정- 吉田 -2리 22정- 御油 -16정- 赤坂 -2리 9정- 藤川 -1리 25정- 岡崎 -3리 30정- 池鯉鮒 -2리 28정- 鳴海 -1리 18정- 宮 -7리- 桑名 -3리 8정- 四日市 -2리 35정- 神部 -1리 반- 白子 -1리 반- 上野 -2리 반- 津 -2리- 雲津 -2리- 松坂 -4리- 小侯 -1리 반- 山田

수 없다. 그러나 야지·기타의 여정의 추이와 시간의 흐름은 확인 가능하다. 둘이 여행을 시작한 후, 여관을 잡고 하루 밤을 묵는 것을 ‘하루’라는 기준으로 삼으면, 며칠이 흐르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 것이다.

본문을 따라 야지·기타가 숙박한 곳을 살펴보면, 초편에서는 도즈카와 오다와라에 숙소를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다와라에서 다음날 하코네 관소를 넘어 기쁨의 술잔을 나누는 곳까지 기술되어 있으니, 초편에서는 2박 3일의 시간이 흐른 것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2편에서는 미시마·간바라·아베카와초·오카베에 숙소를 잡고 있다. 그런데 2편의 마지막 숙박역인 오카베는 다른 숙박 장소들과 성격을 조금 달리한다.

오카베에 도착하기 전, 우쓰노야마(宇津の山)에서 비가 더욱 거세졌는데, 산을 넘는 곳에서 오카베 여관 호객꾼을 만난다. 그리고는 그 호객꾼으로부터 오이강이 통행금지가 된 것과, 시마다와 후지에다는 다른 다이묘 일행들로 숙소들이 꼭 차버렸다는 사실을 통보받는다. 그리하여 야지·기타는 오카베에서 묵기로 결심하고 호객꾼을 따라 오카베에 도착하는데, 도착한 후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오카베 역에 이르니,

두부인<sup>13)</sup> 오카베 역에 도착했다, 발에 생긴 물집을 터뜨리며

우선 이 역에 숙소를 잡고 강의 통행금지가 풀릴 때까지 여행의 피곤을 풀었다.

위와 같이 교카 하나로 감상을 읊고는, 끝나고 있다. 이 오카베 역에서는 다음날의 묘사는 물론 여관 안에서의 밤 묘사도 행해져 있지 않다. 도대체 「통행금지가 풀릴 때까지」가 며칠인지 알 수가 없다. 3편 상부터는 통행금지가 풀려 다시 출발하는 곳부터 나오는데, 여기에도 날짜에 관한 기술은 없다.

오이강은 강폭만으로도 1리(약 4km)나 되는 큰 강이었다. 수심이 가슴보다 위로 오면(약 135cm) 통행금지가 되었는데, 물이 빠질 때까지 며칠이 되던 무조건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28일간 통행금지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 이곳에서 며칠 쉬었는지는 기능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일단 숙박일수와 날짜를 헤아릴 때는, 편의상 묵었다는 기술이 있고, 다음날의 묘사가 있는 것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서 여관 묘사가 빠져있는 오카

13) 옛 여자들은 두부를 하얀 벽에 빗대어, 오카베라 불렀다. 이를 활용하여 특이한 마쿠라코토바(枕詞)를 만들어 지명인 오카베에 중첩되는 의미로 걸쳐 쓴 것이다.

배를 숙박일수에서 빼고 간주하면, 2편에서는 2박 3일의 시간이 흐른 것이 된다.

다음으로 3편에서는 닛사카와 하마마쓰에서 숙소를 잡는데, 하마마쓰 여관에서의 귀신 소동 이후, 다음날 마이자카에서 배를 타고 아라이까지 건너서 끝나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또한 2박 3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 된다.

4편에서는 아카사카·미야에서 묵고, 다음날 배로 구와나에 도착, 축하주를 마시는 것으로 마치고 있다. 따라서 4편도 2박3일이 지나고 있는 것이 된다.

한편 5편은 옷카이치·마쓰자카·후루이치 세 곳에서 묵는다. 후루이치 유곽에서 즐긴 다음날, 이세 참배를 하는 도중에 야지가 복통을 일으켜 히로코지(廣小路) 여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관 안주인의 안산과 야지의 통변과 함께 기쁨의 술잔을 나누는 장면으로 끝난다. 5편 마지막 부분의 본문 인용은 다음과 같다.

「경사 닳네, 경사 닳어. 삼국 제일의 옥과 같은 남자아이가 태어났어. 라는 기쁨의 소리와 함께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등장하여 「손님, 시끄러우시죠. 아까 우리 집사람도 안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이에 야지도 화장실에서 나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지금 막 화장실에서 힘껏 안산하였더니 씻은 듯이 속이 좋아졌습니다. 주인 「이거 당신들께도 축하드릴 일이네요. 기타하치 「서로 경사 닳네, 경사 닳어. 라며 이로부터 기쁨의 술을 나눠 마시고 산파 할머니의 착각이니 뭐니 서로 이야기하며 박장대소한다. 잘됐다, 잘 됐다.

여기서는 여관 내의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참배하다 말고 복통 때문에 여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통상적인 숙박이 아님은 명백하다. 또 안주인의 안산과 야지의 통변 후에 축하주를 나눠마시고는 있지만, 그곳에 묵었는지 어떤지의 기술은 없다. 이리하여 숙박 여부의 기술이 없는 히로코지 여관에서는 묵지 않은 것이라 간주하면, 5편은 3박 4일의 시간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된다.

계속 나아가 6편에서는 요도 강 선상에서 1박을 하고, 고조신치 유곽에서 1박을 하게 되는데, 고조신치 유곽에서 기타가 유녀에게 옷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다음날까지도 계속 죄인 취급당하며 묶여 있다가 겨우 풀려나는 묘사가 되어 있으므로, 6편은 2박 3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게 된다.

7편은 산조에서 1박, 미부데라(壬生寺) 근처 찻집에서 1박 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은 아주 짧게 이루어져 있다.

그로부터 미부데라를 참배하고, 여기에 짚으로 만든 밭을 걸어둔 수상한 찻집에 끌려들어가, 그날 밤의 숙소로 삼고 잤다. 다음날 시마바라(嶋原)를 구경하고 슈자카노(朱雀野)로부터 단바(丹波) 가도를 가로질러 요도(淀) 다리에 이르러,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배를 타고 오사카로 향한다.

이처럼 간단하지만 “묵었다”는 기술이 확실히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날의 행로가 아주 상세하다. 단순히 오사카까지 내려가기 위해서였다면, 구아(空也) 당 승려들과 밥판(飯盛)을 벌인 것은 점심때였으니, 당시 수시로 있었다는 낮 배를 타러 가도 되고, 6편 상에서 했던 것처럼 다시 밤배를 타도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부러 1박하고 다른 곳도 구경한 것처럼 기술한 것은 의도가 있어서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하여 미부데라에서 1박한 것으로 간주하면, 7편에서도 2박 3일의 시간이 흐른 것이 된다.

그 다음 8편에서는 가와치야에서만 묵게 된다. 가와치야에서의 3일 째 아침, 당첨복권이라 믿었던 복권이 당첨되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무일푼이 되었는데, 가와치야 주인 덕분에 구경을 계속하게 된다. 그 후의 일에 관해서는 에필로그 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리하여 야지로베 기타하치는 가와시로(河四郎) 덕에 또 머무르며 곳곳을 남김없이 구경하고, 그 동안에도 둘 다 예뉘코의 털털한 성격으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고, 끊임없는 말장난과, 조금도 우울해하지 않는 모습에, 가와치야의 주인이 크게 감탄하여 의류 등을 새로 해 입혀 주고, 노잣돈도 충분히 들려서 오사카를 떠나게 해주었기에, 이번에는 기소지(木曾路)를 통해 구사쓰(草津) 온천에서 한바탕 놀고, 젠코지(善光寺)로 돌아 묘기(妙義)산, 이나(留那)산을 참배하고, 무사히 돌아갔다. 이 행로는 이어서 집필하되 우선은 여기서 붓을 놓는다.

이 부분에서도 며칠을 묵고 갔는지는 알 수 없다. 게다가 다음날의 행로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없으니, 이는 작품 마무리를 위한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8편에서도 2박 3일의 시간이 흐른 것이 된다.

이상의 결과를 다시 한 번 종합해 보면, 5편을 제외하고는 편마다 모두 2박 3일이라는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편은 상·하는 1월에, 추가는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발간되었으니 같은 ‘편’이라는 단위라 해도 다른 편들과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세 책’으로 나뉘어 있을 정도로 길이가 길어,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3박 4일의 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sup>14)</sup>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속역 수, 거리의 분석결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히자쿠리게』의 구성의 틀을 나타내 주는 또 하나의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진보 가즈야(神保五彌, 1988)의 “『히자쿠리게』의 세계는 이야기 구상은 처음부터 없고, 장면의 전환이 있어서 속편에 속편을 거듭할 뿐이다.”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편마다 일관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갖는 『히자쿠리게』의 특성상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2 작품의 허구와 실제

매우 통일성 없게 보이는 아지·기타의 여행길이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에서 분석한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가도라는 무대와 시간적 배경으로서의 일정이 일관되고 균등한 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작품 안에서 일정한 틀과 규칙성을 지닌 공간과 시간상의 일정이 서로 잘 맞물려 있는지, 실제와는 잘 맞는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날, 둘은 에도를 출발하여 10리 반(약 41km)인 도즈카에서 묵는다. 이 도즈카에 대해서 마쓰다 오사무(松田修, 2002)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호도가야는 무사시(武藏)국이지만, 도즈카 역은 이미 사가미(相模)국에 속한다. 마침 날도 저물 무렵이어서, 숙소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니혼바시로부터 대략 42km, 10리 반, 도중에 말을 탔다고는 하나 당시로서는 평균적인 스피드, 만창을 피우면서 가는 놀이 여행이라는 설정과는 다소 안 맞는다. [중략] 게사쿠리는 틀 속에서 잇쿠의 모든 영위는 행해지고 있다. 게사쿠로서의 효율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11리는 물론 15리라도 잇쿠는 둘을 강행군 시킬 것이다.

보통 여자나 노인 등 걸음이 느린 자들은 에도로부터 7리(약 27km)인 가나가와에서 첫 번째 숙소를 잡는데, 그곳과 호도가야를 넘어 도즈카까지 가려면, 에도를 새벽같이 출발하여, 남자의 걸음걸이로 서둘러야 날이 저물 때쯤 도착할 수 있다.

작자가 도즈카를 첫 번째 숙박역으로 잡은 것은 하루라는 시간적 배경과 맞추기 위해

---

14) 아지·기타의 여행 일정을 보면, 합계 17박 18일을 소비하고 있다. 발단은 여행길이 아니므로 일정에서 제외시켰다.

서는 무리한 설정이었는지도 모르나, 작자가 게사쿠 집필을 위해서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기에는 의문이 생긴다.

『히자쿠리계』에서 날짜에 관한 언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시간에 관한 언급은 간혹 등장한다. 그 표기 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가령 「해 저물 무렵」이라는 식으로 대강의 시각을 나타내는 것과 「몇 시」라고 확실히 명기하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첫날의 출발시각은 어떠했을까. 이 시각에 대해 텍스트에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으나, 마쓰다 오사무(2002)는 「말할 것도 없이 오전 4시경(七つだち)」라고 말한다. 새벽같이 출발하여 남자의 걸음걸이로 서둘러야 날이 저물 무렵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도즈카이다. 새벽같이 출발했으니, 도착시간은 어떠할까. 도착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시나노자카(品野坂)라는 곳에 이르렀다. 이곳은 무주 상주의 경계라 들어,  
들로 나뉜 나라 경계, 장소 바뀌면 물건도 바뀌는 시나노자카로부터  
이미 벌써 해도 서산 끝에 다가왔으니, 도즈카 역에 묵어야 한다며 서둘러 가는 도중에..

『도카이도 분켄 에즈』(東海道分間繪図)에 의하면, 시나노자카란 호도가야와 도즈카 사이에 있으며, 호도가야에서 1리총(一里塚)<sup>15)</sup>은 지나고, 도즈카 전 1리총에는 못 미치는 곳에 위치해 있다. 호도가야와 도즈카의 거리가 2리 9정(약 9km)이고, 각각의 1리총 사이에 있으니 9정(약 1km) 안에 있는 것이 되는데, 즉 둘은 해가 서산 끝에 있을 무렵, 도즈카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된다. 4~5km면 성인 어른이 한 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니, 도즈카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이미 해가 졌거나 어둑어둑할 무렵이었을 것이다.

판전을 부렸다 하여도 새벽같이 출발하였으며, 도중에 말도 탔고, 해질 무렵 이후에는 「서둘러」갔다 하니, 도즈카를 숙소로 잡은 것도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튿날에는 그로부터 9리 27정(약 38km) 떨어진 오다와라까지 나아간다. 여기서도 또한 도중에 가마를 한 번 탄다.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어제보다 거리가 줄었으니, 실제로도 실행 가능한 일정이라 할 수 있다.

15) 가도 양측에 1리마다 흙을 쌓아 이정표로 삼은 둔덕. 대부분은 팽나무나 소나무를 심었다.

게다가 오다와라는 험난하기로 유명한 하코네 산을 넘는 8리(약 31km)를 앞에 둔 역이다. 이 오다와라로부터 하코네를 거쳐 미시마까지 가는 길을 하코네 8리(箱根八里)라고 하는데, 이 난관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보통 오다와라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또 하코네 관소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즈음까지만 열려 있어, 그 시간에 맞추려면 밤새도록 산을 타거나, 아침 일찍 출발해야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숙소로 잡은 것은 적절한 선택이었으며, 실제 여행과도 부합되는 여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3일째에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산을 넘어 8리 떨어진 미시마로 향한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절의 종소리(遠寺のかね)」에 깨는데, 이는 아침 6시경을 가리키는 종소리이다. 6시라면, 음력 2월 중하순경인 이맘때쯤의 일본 일출시각과도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아침 일찍 출발, 관소를 무사히 통과하고 이치노야마(市の山) 즈음 왔을 때는 해가 저물려고 했다.

이렇게 셋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치노야마에 이른다. [중략] 주키치 「이거 재밌네.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 좀 서두릅시다. 라며 발 빠르게 셋은 나아간다. 이미 그 날도 저녁때가 되어 6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그윽하게 퍼지고, 새들도 새집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말을 다그치며 목을 곳으로 서두르는 마부의 노래 소리가 힘이 없는 것은 뱃속이 텅 비어 쓸쓸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 겨우 미시마 역에 도착하자, 양쪽에서 불러대는 여자들의 소리 「목어가세요.

『도카이도 분켄 에즈』를 통해, 이치노야마도 또한 미시마에서 4~5km 떨어진 곳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날과 비슷한 기술이 되는데, 하코네 8리는 보통 하루 걸려 넘는 고개이니, 이 또한 현실적인 일정이라 말할 수 있다.

4일째, 미시마에서 8리 반(약 33km) 떨어진 간바라에서 묵는다. 이 날은 역시 아침 6시에 행해지는 「절의 종소리와 함께 불전에 예배하는 소리」에 깬다. 돈을 도둑맞았기에 간신히 숙박비를 지불하고 출발하여, 「해 질 무렵(雀色時)」에 간바라 역에 도착한다. 거리는 첫날·이튿날에 비해 줄었으니 무난한 일정이다.

5일째, 간바라로부터 7리 3정(약 28km) 떨어진 후추에 머무른다. 이 날은 사쓰타 고개를 넘을 때 즈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비가 내린 관계로 속도가 느려졌을 것이며, 5일째이니 피곤이 쌓이기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초편 범례에 「호객녀, 메모리의 풍류, 각 숙박의 유희, 그 재미를 주로 한다.<sup>16)</sup>」라고 기술되어 있듯이, 아베카와초 유곽이 있는

후추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것이다.

6일째에는 후추를 출발, 3리 25정(15km) 떨어진 오카베에서 묵는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카베 여관 호객꾼에게 비 때문에 오이강이 통행금지가 되고, 시마다와 후지에다 역에는 다른 다이묘 일행들로 꽉 차버렸다는 사실을 통보받는다.

하지만 이들의 당초에 계획은 달랐다. 묵었다 가시냐는 호객꾼의 물음에 야지는 「아니, 우리는 오늘 강을 건너야」한다고 대답하고 있다. 오이강을 건너 곳에 있는 역은 가나야 역, 후추로부터 가나야까지의 거리는 8리 23정(약 34km)이므로 그들의 당초 계획에도 무리는 없다.

언뜻 보면 되는대로 생각 없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둘이지만, 이렇게 나름의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 이들은 오카베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기서 며칠 묵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에도를 출발하고부터 6일, 주인공들이 그동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날씨는 오이강 통행금지가 풀려서 다시 일정이 시작되는 날인데, 여기서는 편의상 7일째라고 하기로 한다. 7일째, 오카베를 출발하여 숙소를 잡은 닛사카까지 6리 22정(약 26km)를 나아간다.

오이강을 겨우 넘고 가나야에서 가마를 타고 가는데, 또 비가 오기 시작한다. 유명한 우타마쿠라(歌枕)인 사요노 나카야마(小夜の中山)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비가 거세게 내리치기 시작한다」. 2편에서 비가 오이강을 통행금지로 만든 복선이었다면, 이번 비는 다음 날에 물이 불어나 다리가 무너진 시오이(塩井) 강에서 장님들을 속여 몰래 업혀 건너는 에피소드로 이끌어가기 위한 복선이었다.

사요노 나카야마 언덕길을 내려와, 닛사카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아직 2시밖에 안됐」지만, 닛사카에서 숙소를 잡는다. 하지만 반드시 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여관에서 야지는 무녀에게 부인의 영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일찍 숙소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야지 「그런데 아가씨, 안쪽 손님은 여자밖에 없는데 저건 어떤 사람들이요? 여자 「모두 무녀입니다. 기타 「뭘, 무녀라고. 그거 재밌네. 강령을 좀 부탁하고 싶네. 야지 「이미 늦었을 거야. 4시 이후에는 영이 안 내린다고 하는데. 여자 「아니 아직 2시를 조금 넘겼을 쯤

밖에 안됐어요. 아지 「그럼 물어봐 줘요. 우리 미누라를 불러달라고 해야지.

이상과 같이 7일째에는 거리, 날씨, 일정과 시간, 무녀가 신 내리는 시간, 다음 날 시오 이강의 다리가 비 때문에 무너지는 것까지 5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장치들이 맞물려져 있다. 이를 우연한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히자쿠리게』의 치밀함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하다.

8일째에는 닛사카에서 나와 하마마쓰까지 9리 34정(약 39km)를 나아간다.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그동안 오카베와 닛사카에서 쌓인 피로도 풀었고 무난한 여정이었으니 9리 34정 정도는 거뜰했을 거라 여겨진다.

9일째는 하마마쓰에서 아카사카까지 11리 8정(약 44km)를 나아간다. 처음으로 첫날의 10리 반을 넘긴 날이다. 우선 마이자카로부터 아라이까지 해상 1리의 거리를 배를 타고 건넌다. 아라이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하고 쉬고 있었을 때, 같은 찻집에 들어온 사무라이가 여자에게 시간을 묻는데, 여자는 1시 반이라 대답을 한다.

여기서부터 들은 가마를 타고 약 3리(약 12km) 떨어진 후타가와까지 가고, 거기서부터는 다시 약 3리를 걸어서 고유 역에 들어서기 직전 1리 거리에 위치한 다이운지(大雲寺)에 이른다. 이즈음에서 「이미 해가 기울어, 저물 무렵에 가까워」진다. 점심을 먹고 약 4시간동안, 반은 가마를 이용하고, 반은 걸어서 6리를 계속 나아간 것이다.

해가 저물려 하여 들은 서두르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아카사카까지의 거리는 약 1리 16정(5~6km)인데 야지는 이미 지친 상태여서, 기타가 먼저 서둘러 가 숙소를 잡기로 한다. 아카사카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아카사카 역에 이르렀다. 이미 어느 숙소든 손님을 받았으며, 문밖에 서있는 여자들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평소에는 호객소리에 이끌려 숙소를 잡은 것과는 달리, 그럴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의미에서 지금까지보다 늦은 시각에 숙박역에 도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거리가 늘어난 만큼 시간이 걸린 점도 있지만, 여기서는 먼저 에피소드에 주목해야 한다.

여우에 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린 야지는, 아카사카까지 약 2km 남겨둔 마쓰바라(松原)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타를 여우가 변신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를 포

박하여 아카사카까지 끌고 간다. 포박해서 끌고 가는 만큼, 평소와 같은 스피드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아카사카 도착시간을 늦게 책정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0일째, 닭 울음소리와 함께 기상하고 아카사카에서 미야까지 12리 2정(약 47km)를 나아간다. 어제보다도 길어진 여정이지만, 해가 저물기 전에는 미야에 도착한다. 아리마쓰에서 시보리 천 가게 주인을 놀리고 나와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꽤 오랫동안 탄청을 피웠다. 좀 서둘러서 가자. 라며 여기서부터는 조금 길을 서둘러 가는데, 벌써 나루미 역에 도착하니,

나그네가 서두르면 땀이 나는 나루미, 여기도 시보리가 명물이다 [중략]

미야 역에 이르렀을 즈음에는 벌써 날이 저물기 직전이어서, 역 끝에서부터 집집마다 손님을 멈추게 하는 호객녀들의 소리가 요란하다.

『도카이도 숙촌대개장(東海道宿村大概帳)』에 의하면, 아리마쓰란 나루미에서 18정(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곳이라 한다. 나루미에서 미야까지의 거리가 1리 18정(약 6km)이기 때문에 합해서 2리(약 8km)를 남겨둔 셈이다. 2리는 ‘지금까지의 서둘러 가기 시작한 지점부터 숙소까지의 거리(약 5~6km)’보다 많은 8km이다. 그래서인지 교카에서도 서두른다는 것을 소재로 하여, 그 조급함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라고 본다.

11일째에는 미야에서 윗카이치까지 10리 8정(약 40km)를 간다. 해상길을 건넌 후, 구와나부터 다시 길을 나아가는데, 이들은 주인과 하인 놀이를 하기로 한다.

기타 「야지씨, 재미로 이렇게 합시다. 당신 짐과 내 것을 같이 해서 한 사람이 매고, 반나절 교대로 주인과 하인이 되는 것은 어때요? 야지 「이거 재밌네. 좋다. 우선 나부터 주인으로 시작할게. 기타 「그건 괜찮지만, 오늘은 벌써 2시니까, 4시 교대로 합시다. 물론 주인과 하인 순번은 서로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야지 「당연하지.

2시에 놀이를 시작하고, 도미타(富田) 휴게소에 도착한다. 이 곳 찻집에서 한 차례 대합조개를 먹고, 다시 추가주문 한 것을 먹는 사이에 교대시간인 4시가 된다. 도미타 휴게소는 구와나에서 약 2리(약 8km), 윗카이치에서 약 1리(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

한다. 구와나에서 2리를 걸어오는 시간과 점심을 한 차례 먹은 시간을 합하면, 구와나 출발시각부터 2시간이 지난 것도 알맞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윗카이치까지 8정(약 1km)를 남겨둔 곳(あくら川)에서 윗카이치 호객꾼을 만난다. 야지가 주인과 하인 역할 교대를 안 해줘서 둘이 찻집에서 다투다가 계산하고 나오는데 30~40분, 3km 걷는데 40~50분을 잡으면, 이 호객꾼과 만났을 때는 대략 5시 반쯤이 됐을 것이다. 음력 2월 하순의 일본 일몰시각은 오후 6시 15분경이다. 즉, 이 날 또한 해상 7리를 포함한 10리 길을 무사히 마치고, 해 질 무렵에는 숙소에 들어간 것이 되겠다.

12일째에는 윗카이치로부터 마쓰자카까지 12리 17정(약 49km)을 나아간다. 이 날의 일정이 『히자쿠리계』를 통틀어서 가장 긴 여정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교카시인 가보차노 고마지루를 만나 짓펜사 잇쿠를 사칭하여 여관에서 대접을 받다가 들통이 나서 쫓겨난 것이다. 쫓겨나기 전의 여관 위치는 구모즈였고, 이곳까지로 해서 여정을 계산하면 10리 17정(약 41km)가 되니, 당초 계획대로라면 적당한 거리가 된다.

한편 구모즈에서 마쓰자카까지는 2리(약 8km)를 가야만 한다. 쫓겨난 시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차가마루 「그런데요, 야지로베 선생님, 그 가짜 잇쿠를 지금 데리고 올까요? 야지 「아니 나는 이제 출발하겠소 고마지루 「왜요 지금이 몇 시인데요. 벌써 10시예요 야지 「그러니까 말이야. 내 병은 신기해서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점점 악화돼. 항상 밤에 밖을 걸어서 차가워지면 바로 좋아지니까. [중략] 그 후에는 웃음을 일으키고 나왔지만, 벌써 해시(9시~11시)가 지난 듯하여, 집들이 문을 닫고 적막에 휩싸여 어느 것이 여관인지도 알 수 없다. [중략] 야지 「이거 곤란하게 됐네. 됐다, 기타하치, 밤새도록 건자꾸나. 힘들 것도 없지. 건자, 걸어. 기타 「큰일 날 말을 하시네. 아직 12시는 안됐을 거요 어디든 묵고 싶다.

저녁 때 쭈 구모즈에 도착, 식사 대접을 받고, 교카시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를 써준 것을 생각하면, 10시 넘어 쫓겨난 것도 이해가 된다. 도중에 귀신 소동이 있었지만, 마쓰자카에 도착한 것이 「아직 밤이 깊」을 때라고 하니, 8km를 넉넉잡아 2~3시간 만에 왔다고 생각하면 잘 맞아떨어진다.

13일째에는 마쓰자카에서 야마다까지 5리 반(약 22km)을 나아간다. 6시의 종소리와 함께 기상, 마쓰자카에서 얼마 안가서 가미가타 사람과 말을 같이 나눠 타게 된다. 4리(약 16km) 떨어진 고바타에 도착, 여기서 야지는 다투던 기타와 가미가타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술을 산다.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그로부터 1리 반(약 6km) 떨어진 아마다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오시(御師)들이 손님을 찾고, 다이다이코(太々講)들이 줄지어 식사하러 들어가는 것을 보니, 저녁 무렵일 것이다. 이들은 이날 점심 먹은 기록이 없으니, 늦은 점심을 겸해서 술판을 벌였다면 나아간 여정은 짧으나 이러한 일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이상으로 초편부터 5편까지의 일정과 거리의 비교대조를 통해, 『히자쿠리게』의 일정도 반드시 불가능한 허구만이 아닌, 나름대로 잘 짜여진 일정임을 확인하였다.

당시 이세 참배를 하던 사람은 적어도 24만 명 이상이 된다. 이것은 여행자 증표를 발급받은 사람의 수이니,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야지·기타와 같은 여행을 한 것이다. 그 24만 명 중, 이 인기작품의 일정을 따라하는 자들이 있었으리라 하는 것은 쉽게 예측 가능하다. 실제로 그런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1862년에 발간된 개판본(改版本)에는 각 숙역 간의 거리를 예를 들어서 「시나가와로부터 가와사키까지 2리 반」이라는 식으로 기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앞서 제시한 마쓰다 오사무의 「게사쿠로서의 효율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11리는 물론 15리라도 잇쿠는 둘을 강행군 시킬 것이다.」라는 언급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2.3 오리지널과 모방작

2.1, 2.2에서는 주인공들이 나아가는 여정상의 숙역 수와, 거리, 일정을 분석하고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편마다 10개에서 11개의 숙역을 지나, 20리에서 26리의 거리를 가고 있으며, 5편의 3박 4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2박 3일의 시간이 균등하게 흐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작품 내 시간과 거리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제로도 작품 내 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편 혹은 책마다 일관된 숙역 수, 거리, 일정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은 작품의 규칙적인

17) 이 이후, 14일째는 아마다에서, 15~16일째는 교토에서, 17~18일째는 오사카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는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지금까지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교토와 오사카에 관해서는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관광지에서 관광하는 것이 되므로, 이동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시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앞에 제시한 단순한 대조분석만으로는 그 일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15~18일째의 일정분석은 금후의 과제로 삼으려 한다.



법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1년에 한번 간행되는 편이 그러한 규칙을 따라 실행되었으므로, 이 시리즈물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장편으로서 통일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일관성과 규칙성, 통일성이 있는 구성은 『히자쿠리게』의 인물조형이나 골격적 기교 등의 다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며, 이 기반이란 작품의 인기비결에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조잡한 나열이 아닌 정리된 틀 속에서의 배치가 취향과 의미전달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히자쿠리게』 연재 당시부터 출간됐었던 모방작이나 아류작과의 결정적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히자쿠리게』의 모방·아류작 중에 1806년에 간행된 빈도인(貧道人)의 『히자쿠리게 속편』(膝栗毛續編)이 있다.<sup>18)</sup> 이 작품은 1805년에 간행된 『히자쿠리게』 4편 권수(卷首)의 「이세신궁을 도」는 것과, 「오쓰가도(大津街道)의 이야기는 5편제인 마지막 편에 실었다」는 예고된 내용을 토대로 그 루트대로 집필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빈도인의 작품은, 구와나(『히자쿠리게』 4편이 끝나는 역) 이후, 이세 참배를 뛰어넘고 다시 도카이도로 돌아가 오쓰(大津)를 거쳐 교토로 들어가는 취향을 작품명까지 표절하여 먼저 사용하려 한 모방·아류작인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해 잇쿠는 5편 상의 「부언 및 범례」(付言併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썼는지, 히자쿠리게 속편이라 하는 것이 교토의 서지에서 나왔다며, 가즈샤야 주스케(上總屋忠助)라는 사람이 나에게 보내왔었다. 내가 이것을 보건데 그 구성이 신중하며 골계도 또한 교묘하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글의 재능을 가지고 어찌하여 자립하지 않는지가 의심스럽다. 이는 명예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에 달리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일까. 하지만 나를 위한 광고가 되어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었다. 이로 인해 지금 5편째에 이르러서 이윽고 나올 책에 대해 다투어 보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서지는 기뻐하면서 더더욱 히자쿠리게가 꼬리에 꼬리를 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니 어리둥절하다.

위와 같이 잇쿠는 그 구성과 취향을 칭찬하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 오히려 작품 선전이 되었다는 여유로운 언급을 하고 있다. 이는 5편까지 그 인기를 고수한 자

18) 빈도인이라는 인물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며, 그의 작품인 『히자쿠리게 속편』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다. 市橋鐸(1963) <未刊名古屋本膝栗毛覺書> 『説林』, 愛知縣立大學國文學會.

신의 작품에 대한 잇쿠의 자신감이 나타난 것이기도 한데, 이 모방·아류작의 골격적 기교가 잇쿠의 『히자쿠리게』보다 뛰어난지 못 미치지지는 차치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본작(本作)과 안 맞는 것이 그 구성에 있었던 것이었다.

예를 들어 『히자쿠리게』 5편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빈도인의 모방작은 구와나에서 출발하여 도카이도의 윗카이치, 이시아쿠시(石薬師), 쇼노(庄野), 가메야마(龜山), 세키(關), 사카노시타(坂ノ下), 쓰치야마(土山), 미나쿠치(水口), 이시베(石部), 구사쓰(草津), 오쓰(大津), 교토 산조 다리(三條橋)라는 13개의 역을 지나고 있으며, 그 거리는 합계 30리 13정(약 119km)이어서, 『히자쿠리게』본작의 「편 당 10~11개의 속역, 20~26리의 거리」라는 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음 해인 1807년, 잇쿠는 본래 ‘속편’으로 발간하려던 것을 ‘6편’으로 바꾸었으며, 그 내용도 도카이도로 돌아가는 기미 없이 교토 구경을 뒤로 미루고 후시미에서 오사카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대폭적 변경을 꾀하였다. 한편 6편에서 야지·기타는 화장실 가기 위해 잠시 배에서 내렸다가 잘못 타서 결국에는 후시미로 되돌아오게 되는데, 이리하여 7편의 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오사카가 아닌 교토부터 도는 것으로 재변경되어, 빈도인의 작품과 다른 참신함을 유지하면서 그 작품 때문에 작품의 본 즐거리를 변경한 것이 아니게 되었으니, 본작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었다.

이러한 잇쿠의 용의주도한 대응으로 인해 빈도인의 『히자쿠리게 속편』은 후편을 내지 못한 채 끝나게 되는데, 인기를 얻지 못했던 요인 중 하나로 작품 구성의 상이함이 작용하여 본작과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점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sup>19)</sup> 요컨대 잇쿠의 『히자쿠리게』와 그 모방작과의 결정적 차이로 판단되는 구성 면은 후지무라 쓰쿠루(1928)의 「이야기 소설적인 사건의 줄거리에 무게를 두지 않고」 「인물의 이름이나 장소의 관계로 인해 이를 묶고 있다」는 언급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본 작품은 에피소드 수와 공간적·시간적 배경이라는 일관된 배열 속에서 규칙적인 법칙을 갖고 해마다 집필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통일된 장편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의 언급과 같이 줄거리에 무게를 두지 않은 단편적인 사건 나열에 불

19) 모방·아류작과의 비교는 『히자쿠리게』의 「도추 골계물」로서의 특수성을 나타내는데 좋은 척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다. 방대한 양의 모방·아류작들이 아직도 서지학적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 큰 이유일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한 빈도인의 작품과의 골격적 기교 비교나, 다른 모방·아류작과의 비교는 차후의 과제로 삼으려 한다.

과하다는 『히자쿠리계』 구성에 대한 평가는, 재평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 3. 결론

본고에서는 에도 후기 골계본의 대표작인 짓펜사 잇쿠의 『도카이도추 히자쿠리계』가 인물조형이나 골계적 기교, 전거 작품의 개작 형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구성 면에서 허술하다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과 구성의 면이 선행연구에서는 등한시되어온 분야임에 주목하여, 텍스트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작품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편마다 일관되게 10개에서 11개의 숙역을 지나, 20리에서 26리의 거리를 가고 있고, 5편의 3박 4일을 제외하고는 2박 3일의 시간이 균등하게 흐르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의 틀이 모방·아류작과의 확연한 차이였으며, 골계적 기교를 중요시하는 골계본이지만, 그 기반에는 치밀한 구성이 깔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작품의 종합적인 이해와도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상이 『히자쿠리계』의 형식에 관한 분석결과이며, 한편 내용상으로는 창작된 인물인 야지·기타의 코믹함에 가려져 주목을 받지 못한 현실적인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히자쿠리계』에 그려진 일정과 거리는 작품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 타당성도 겸비하여 장편으로서 통일된 구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논자의 부족함으로 인해 『히자쿠리계』 시리즈 중 정편인 초편부터 8편, 그리고 발단의 텍스트 분석에 한정시켰으나 『속 히자쿠리계』 초편부터 12편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 작업을 통하여 종합적인 시리즈물로서의 『히자쿠리계』의 모습을 확인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sup>20)</sup>. 지금까지의 고찰이 도추 골계본 즉 골계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게이쿠 전반에 걸쳐서도 해당되는 것일 수 있음을 밝히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한다.

20) 『속히자쿠리계』는 잇쿠의 참고자료였던 『쓰쿠시 기행』(筑紫紀行)과의 관계 이외에는 거의 고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쓰쿠시 기행』(1806)은 오와리(尾張)의 상인인 히시야 헤이시치(菱屋平七)의 작품인데, 잇쿠는 『속 히자쿠리계』 초편, 2편과 『가네와라지』 4편, 26편에서 이용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에 상세하다. 小林寛子 「『筑紫紀行』と『續膝栗毛』 『金草鞋』」 『古典研究』(雄山閣, 1994)

참고 문헌

- 周作人 作, 松枝茂夫 譯(1940) 『瓜豆集』 創元社. pp.110-111
- 麻生磯次(1958) 『(日本古典文學大系62) 東海道中膝栗毛』, 岩波書店. pp.3-5
- 池田廣司(1976) 「文學研究のあり方—「東海道中膝栗毛」に寄せて—」 『日本文學』, 日本文學協會.
- 小池正胤(1980) 「十返舎一九作 『東海道中膝栗毛』作品鑑賞」 『圖說 日本の古典18』, 集英社. p.57
- 康志賢(1994) 「『東海道中膝栗毛』の一考察: その大衆性を中心に」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논문.
- 神保五彌(1988) 「巷談街説の文學世界—一九・三馬・春水など」 『日本學』, 名著刊行會. p.138
- 棚橋正博(1999) 『笑いの戯作者』十返舎一九』, 新典社.
- 中村幸彦(1948) 「十返舎一九論」 『國語國文』, 京都帝國大學國文學會.
- 中村幸彦(1966) 『戯作論』 6~8, 10章, 角川書店.
- 中山尙夫(2002) 『十返舎一九研究』, おうふう.
- 浜田啓介(1978) 「滑稽本總説」 『鑑賞日本古典文學』, 第34卷, 角川書店. p.187
- 藤村作(1928) 「一九研究」 『日本文學講座』 第三卷, 新潮社. p.9
- 富士昭雄(2002) 『叢書江戸文庫50 東海道名所記/東海道分間繪圖』 國書刊行會.
- 松田修(2002) 『松田修著作集』 第2卷, 右文書院. pp.64-67
- 三田村鳶魚 編(1926) 『東海道中膝栗毛輪講』, 春陽堂. p.11
- \_\_\_\_\_ (1976) 『三田村鳶魚全集』, 第12,15卷, 中央公論社.
- 綿拔豊昭(2004) 『「膝栗毛」はなぜ愛されたか』, 講談社. pp.8-12